

『법구경』을 통한 인성함양의 방향 모색: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이영림(범우)
동국대학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법구경』을 통해 영유아교사를 위한 인성함양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시대와 종교를 초월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지혜가 담긴 격언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성의 지침서로 알려진 『법구경(法句經, Dhammapada)』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헌 분석을 위해 전재성의 『법구경-담마파다』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크게 2차로 나누어 수행한 방법을 통해 분석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매일 자기성찰을 통해 어디에도 흔들림 없는 자신의 수호자로서 교사이다. 둘째, 마음의 유연성을 기르는 것으로써 연기적 통찰을 통해 참사람의 향기를 누구에게나 나눠 줄 수 있는 교사이다. 영유아교사를 위한 인성함양의 핵심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자비심 실천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영유아교사 인성함양을 위한 불교적 접근은 더 나은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핵심주제어: 법구경, 인성함양, 영유아교사, 평정심, 유연성

* 이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였음.

본 연구는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I. 들어가는 말

최근 유아교육현장에서 자행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¹⁾ 위해 교사의 인성 함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1월 12일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주요개정에서 교육영역에 ‘교사인성’(2과목)을 지정하여 대학 등에서 의무로 이수하게 한 것은 보육교사의 인성적 자질 향상을 위해 그 자격기준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²⁾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은 2016년부터 ‘마음성장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맞춤형 인성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

이러한 실천이 반가운 이유는 인성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가 바로 ‘영유아기’이기 때문이다.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대부분 영유아들은 장시간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교사들의 생활습관이나 행동양식, 사고 및 감정표현 등을 모방하여 습득하게 된다.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인성역량 강화에 교사 자신을 포함한 교육계가 그동안 안일하고 소극적이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⁴⁾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인간사회를 더욱 급변하게 만들고 학교교육의 변화를 예고한다. 『사피엔스』의 저자이며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Y. U. Harari)는 후속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감성지능과 마음균형(Mental Balance)을 강조하였다.⁵⁾ 미래교육은 변화에 유연하고 적응 가능한 마음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교사와 그들을 위한 인성함양의 내용 및 방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성함양을 위한 다각적이며 구체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1) 보건복지부, 〈정부, 제 11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열어 아동학대 근절 의지 다져〉 2017년 11월 16일자.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9492&page=1.에서 2017년 11월 18일 검색.

2) 보건복지부, 〈보육교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2016년 1월 12일자.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9492&page=1.에서 2017년 8월 31일 검색.

3) 한국보육진흥원, <https://www.kcpi.or.kr/>.

4) 〈보육교사 아동학대 증가하는데 인성교육은 4.8%만 이수〉 《헤럴드경제》 2017년 10월 28일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27000795>.에서 2017년 10월 30일 검색.

5) 〈AI 수학·과학 맡기고, 우린 감정지능 과목 만들자〉 《조선일보》 2017년 3월 21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1/2017032100223.html.에서 2017년 4월 20일 검색.

이에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교적 접근⁶⁾을 시도하려고 한다.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천한다 할지라도 ‘종교’를 통한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 탐구는 끊임 없이 이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행복 추구는 ‘교육’의 목적 과도 깊게 연관된다. 특히 ‘마음의 종교’ 혹은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 불리는 불교의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처님은 “자비롭고 원만한 인격을 소유한” 인류의 진정한 스승 이면서 지혜로운 교육자⁷⁾로서 그 가르침이 현재까지 존속되어 널리 전파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법구경』(法句經, Dhammapada)을 통해 영유아교사 인성함양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이 경(經)은 현대 물질문명 사회의 급박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⁸⁾ 그래서 시대와 종교를 초월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지혜가 담긴 격언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성의 지침서로 읽혀 왔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통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길을 알려주는 “삶의 이정표”⁹⁾가 되어 주었다.

이처럼 『법구경』은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직면한 난관들의 근원적 속성을 이해하고 통찰하도록 도울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함께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품 혹은 인성을 스스로 살펴 볼 수 있어서 자발적이며 안전하게 긍정적 변화를 끌어 낼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현장에서 영유아교사가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볼 줄 아는 지혜와 자신에게 닥친 난관을 주체적으로 극복하여 되도록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우는 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현직’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성함양 혹은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로는 프로그램 개발¹⁰⁾ 등의 연구가 소수로 있을 뿐 사실상 활발히 진행되지는 못한 편이다. 한편 『법구경』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불교사상을 규명하거나 불교의 인간관에 대해 다룬 것이 있으나 이것도 몇 편에 불과하다.¹¹⁾ 그리고 『법구경』과 인성을

6) 이향만, 「인성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52권, 2016, 151쪽.

7)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불교학개론』(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63쪽.

8) 법정 옮김, 『진리의 말씀: 법구경』(경기도: 이레, 2005), 11쪽.

9) 전재성 역주, 『법구경-담마파다』(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8), 9쪽.

10) 김경신, 「교직역량에 기반한 유아교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변미옥, 「영유아교사의 인성함양을 위한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남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유주연·김순환, 「유아교사의 통합적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육아지원연구』 10권 제2호, 2015, 137-165쪽.

11) 김용환, 「『法句經』(Dhammapada)의 사상」 『동아시아불교문화』제6집, 2010, 319-359쪽; 김준호, 「초기

접목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더 나은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일은 현 시점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점에서 『법구경』과 인성에 관한 연구는 가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직 영유아교사 인성함양의 방향을 『법구경』에 근거하여 새롭게 조명하려는 적용가능성에 그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법구경』을 통해 영유아교사의 인성함양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다. 먼저 II장에서는 『법구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III장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2차로 나누어 진행되는 문헌 분석의 연구 절차를 제시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인성함양의 현실적인 대안을 『법구경』을 토대로 영유아교사를 위한 인성함양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II. 『법구경』의 이해

불교는 2,600여년의 장구한 기간 동안 인류의 정신·문화적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나는 누구인가?’, ‘진정 인간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실천적 방향을 제시해 왔다. 그래서 불교를 ‘인간학’¹²⁾이라 부르기도 한다. 불교는 참된 깨달음을 이루고자하는 자발적 의지로써 지속적인 마음 수행을 통해 궁극에는 자아완성과 자아실현이 가능한 종교라고 할 수 있다.¹³⁾ 이와 같이 불교의 인성관이 담긴 불교 경전 중에 특히 『법구경』을 들 수 있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이후부터 열반까지의 45년 동안에 설하신 핵심 사상을 짧은 사행시 형태의 경구(警句)로 표현한 고귀한 법서(法書)이다.

『법구경』의 기원에 대해 학계는 그 성립을 기원전 3, 4세기로 추정한다.¹⁴⁾ 『법구경』은 인도의 언어인 빠알리어로 그 경명(經名)이 『담마파다(Dhammapada)』이며, 부처님의 원음을 순수하게 유지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불교문헌 가운데 그 불교사

불교의 욕망론과 선(禪)-『숫타니파타』와 『담마파다』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제 36호, 2005, 199-216쪽; 안신·허우성, 「이슬람과 불교의 인간관에 대한 비교 연구: 꾸란과 법구경을 중심으로」 『韓國中東學會論叢』제32집 1호, 2011, 163-183쪽.

12) 광만연, 「불교의 인간관과 인성관」 『學生研究』제29집 1호(부산: 동아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2001), 51쪽.

13) 이영립(범우)·김혜순, 「어린이집 생명존중교육의 난점과 명상의 접목 가능성 탐색」 『한국불교학』제 75집(서울: 한국불교학회, 2015), 413쪽.

14) 대한불교조계종 역경위원회 역, 『한글 대장경』16-2(서울: 동국역경원, 1977), 16쪽.

적 가치가 크다.¹⁵⁾ 불교 경전은 크게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의 세 갈래로 나뉘는데, 『법구경』은 부처님의 다양한 설법이 담겨있는 가장 방대한 5부 니까야인 경장에 속한다.¹⁶⁾ 이것은 4부 니까야와 소부 니까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소부 니까야인 『꿏다까 니까야』에 『법구경』이 포함되어 있다.

개념을 살펴보면, 한역의 ‘법구(法句)’에서 먼저 법(法)은 빠알리어로 ‘담마(dhamma)’라고 하며 ‘진리’, ‘법’, ‘가르침’을 뜻하고, 구(句)의 의미는 ‘말씀’으로 번역된다. 또한 빠알리어로 ‘파다(pada)’는 ‘길’, ‘말’, ‘발자취’라고 한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진리의 말씀’, ‘깨달음의 길’,¹⁷⁾ ‘가르침의 조각들’, ‘가르치신 계승’, ‘진리의 문구’, ‘진리의 길’, 더 나아가 ‘열반¹⁸⁾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 ‘행복으로 이끄는 길’¹⁹⁾로 해석하기도 한다.

『법구경』에는 부처님께서 중생제도를 위해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신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 핵심 사상은 다음과 같다. 바른 진리를 깨닫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덕목으로 계정혜(戒定慧)²⁰⁾와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하고 이것의 닦음을 강조하며, 철저하게 사성제(四聖諦)²¹⁾와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²²⁾에 대한 통찰지로서 번뇌를 제거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²³⁾ 또한 이러한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지금-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집중한다.²⁴⁾ 먼저 당장의 닦친 문제의 원인을 통찰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감로(甘露)의

15) 위의 책, 15쪽.

16) 전재성, 앞의 책, 13쪽.

17) 정태혁 편역, 『법구경 인연담』(서울: 정신세계사, 2007), 5쪽.

18)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야기된 이기적인 욕망의 불꽃을 끄고, 인류의 모든 생명을 살리려는 욕망의 불꽃을 적극적으로 일으킨다는 뜻이다. Smith, H., *The world's religions*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1), p.113.

19) 전재성, 앞의 책, 11쪽.

20) 계(戒)는 윤리적 행위, 정(定)은 마음 닦기, 혜(慧)는 지혜이다. Rahula, W., *What the buddha taught* (London and Bedford: Gordon Fraser, 1990), p.46.

21) 불교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서, 고성제(苦聖諦)·집성제(集聖諦)·멸성제(滅聖諦)·도성제(道聖諦)를 말한다. 즉,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 소멸의 길’을 말한다. 마지막 도성제(道聖諦)에서는 해탈과 열반에 이르기 위한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팔정도(八正道) 실천을 강조한다. 이것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길’인 중도(中道)를 실천행위로 삼는다. 위의 책, p.45.

22) 불교의 무아설은 불교를 다른 종교와 가장 대별되게 하는 교리이다. 호진, 『무아·윤회 문제의 연구』(서울: 불광출판사, 2015), 125쪽; 이것은 ‘나’를 무조건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나를 찾기 위한 기본 배경으로서 이를 통해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교양교재편찬위원회, 앞의 책, 97쪽.

23) 김용환, 앞의 글, 320쪽.

24) Smith, H., 앞의 책, pp.95-96.

말씀은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윤리적 내용이 주를 이루며,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매 순간 ‘연기적 삶’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이끈다.

『법구경』의 구성은 주제에 따라 26품이 있고 그 속에 총 423개의 계송이 달려있다. 하나의 주제에 계송이 적게는 10개, 많은 것은 41개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계송이 포함된 것은 26품 ‘바라문’이고, 이에 비해 가장 적은 품은 7품 ‘거룩한 님’과 12품 ‘자기’이다. 또한 그 각각의 계송은 주로 그 내용이 독립적이거나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계송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다. 주제별 내용에는 각각 계송의 문장 구조가 원인과 결과 혹은 해결방법으로 구성되어있다.

다음의 〈표 1〉은 각 주제에 따른 『법구경』의 품 구성이다. 이 표는 연구자가 기존 품의 순서에 따라 주제인 품명, 그에 딸린 계송의 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품명(品名)은 전재성의 『법구경-담마파다』(2008)의 표기에 따랐다.²⁵⁾

〈표 1〉 『법구경』의 품 구성

품(순)	품명	계송(수)	품(순)	품명	계송(수)
1	쌍의 품	20	14	깨달은 님의 품	18
2	방일하지 않음의 품	12	15	안락의 품	12
3	마음의 품	11	16	사랑하는 자의 품	12
4	꽃의 품	16	17	분노의 품	14
5	어리석은 자의 품	16	18	티끌의 품	21
6	현명한 님의 품	14	19	진리에 서있는 님의 품	17
7	거룩한 님의 품	10	20	길의 품	17
8	천의 품	16	21	다양한 것의 품	16
9	악의 품	13	22	지옥의 품	14
10	폭력의 품	17	23	코끼리의 품	14
11	늪의 품	11	24	갈애의 품	26
12	자기의 품	10	25	수행승의 품	23
13	세상의 품	12	26	바라문의 품	41
전체 26품, 총 423 계송					

25) 우리나라에서 직·중역된 20여 종의 『법구경』은 그 해석에 있어 단어나 문장의 표기가 약간씩 다르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를 위한 인성함양의 방향 모색을 위해 세계의 고전(古典)이라 불리는 『법구경』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 법구경 주해서로 알려져 있는 전재성의 『법구경-담마파다』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한역 경전인 『法句經』, 『出曜經』, 『法集要頌經』을 원전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크게 2차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1차는 다시 4단계로 진행되었다. 1, 2차의 주안점은 『법구경』 개송과 관련하여 다음의 <표 2>와 같은 질문에 중점을 두었다.

<표 2> 1, 2차 질문내용 및 전문가

차수	질문내용	전문가
1차	영유아교사가 인성 덕목 실천의 내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합한 개송	불교 및 유아교육 관련 총 6명
2차	선정된 개송을 토대로 본 영유아교사를 위한 인성함양의 방향	인성교육 관련 총 4명

1차에서 4단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로,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11품 ‘늬움’의 개송 11개와 22품 ‘지옥’의 개송 14개, 총 25개의 개송을 제외시켰다. 이는 본 연구가 유아교사에게 현재 맞닥뜨린 ‘지금-여기’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래 26개 품 423개의 개송에서 24개 품 398개의 개송이 선정되었다.

2단계로, 연구자와 유아교육 전문가(교수) 1인과의 상호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확보이다. 이는 영유아교사가 지각한 인성 덕목 실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개송에 체크하는 것이다. 그 결과, 9품 ‘악행’ 13개, 13품 ‘세상’ 12개, 그리고 26품 ‘바라문’ 41개가 배제되었다. 본 연구가 영유아교사가 인성 덕목을 실천하는 어려움을 외부로 보지 않고 자신의 내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에 언급한 품과 개송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바라문의 품’은 교사를 가장 높은 위치의 승려 계급인 바라문과 같은 관점에서 그러한 정신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인성 덕목 실천의지를 내면화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법구경』 24개 품 398개의 개송에서 21개 품 332개의 개송을 선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분석 대상의 용어 및 내용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렵다고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빠알리어 직역본임을 감안하여 볼 때 보조 자료 활용의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이후 보조 자료로 법정스님의 『진리의 말씀: 법구경』이 선정되었고, 원 자료의 계송에 덧붙여 괄호를 사용하여 그것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 추가하였다.

3단계로, 원 자료와 보조 자료의 통합본을 정독하면서 영유아교사가 인성 덕목 실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계송을 품과 구분 없이 체크하였다. 이 때 적합도에 따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조사 결과에서 ‘매우 적절하다’(5점)에 체크한 것을 중심으로 처리하였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제외시켰다. 그 결과 7품 ‘거룩한 님’ 10개, 14품 ‘깨달은 님’ 18개, 15품 ‘안락’ 12개, 그리고 24품 ‘갈애’ 26개 총 66개의 계송이 탈락되었다. 이에 21개 품 332개 계송에서 17품 266개 계송이 선정되었다.

4단계로, 불교 및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 6인(불교 관련 전문가 2인, 유아교육 관련 교수 2인, 유아교육기관 원장 1인, 현직 유아교사 1인)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전문가 간의 일치도(4인 이상 같은 빈도를 나타낸 것)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14개의 품이 확정되었고, 6인의 선정 빈도가 가장 높은 33개의 계송을 채택하였다. 영유아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인성 덕목을 실천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계송이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14개 품의 순위 결정 방법은 각각의 품에 전문가 6인이 각 품의 계송에 ‘매우 적절하다’(5점)에 체크한 개수를 합산한 것이다. 만약 합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전문가 6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품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것이 발견되면 그 품을 아래 순서로 내리고 그런 경우가 없으면 품 번호가 상위인 것을 앞의 순서로 정렬하였다. 이에 품별 상위 순서는 자기-분노-쌍-현명한 님-방일하지 않음-꽃-천-진리에 서있는 님-수행승-어리석은 자-길-마음-티끌-코끼리-폭력-사랑하는 자-다양한 것이다. 품명이 가장 높은 순서는 ‘자기’이고 가장 낮은 것은 ‘다양한 것’이다.

다음의 <표 3>은 수행된 연구절차에 따라 인성 덕목 실천의 내적 어려움²⁶⁾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구경』 품별 순위를 제시한 것이다.

26) 이영림, 「유아교사의 인성 덕목 실천에 대한 어려움」 『생태유아교육연구』 제16권 제2호(부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7), 139-148쪽.

〈표 3〉 인성 덕목 실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법구경』 품별 순위

순위	품(번호)	품명	순위	품(번호)	품명
1	12	자기	8	19	진리에 서있는 님
2	17	분노	9	20	길
3	1	쌍	10	10	폭력
4	6	현명한 님	11	18	티끌
5	2	방일하지 않음	12	23	코끼리
6	4	꽃	13	16	사랑하는 자
7	8	천	14	21	다양한 것
총 14개 품, 33개 계송					

이와 같이 4단계의 연구 절차를 거쳐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먼저 영유아교사가 자기성찰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자신의 수호자’로서의 성품을 함양하는 내용과 인간관계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참사람의 향기’로서의 성품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각 계송 22개와 계송 11개가 달려 있다.

2차 단계 실시의 목적은 1단계에서 범주화 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계송 33개를 통해 주제를 더욱 명료화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를 포함한 인성교육 관련 전문가 4명이 연구 자료를 검토하였고, 선정된 계송을 토대로 인성함양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1단계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그 주제는 먼저 자기성찰을 통해 평정심을 유지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연기적 통찰로 마음의 유연성을 가지는 내용으로 더욱 인성함양을 위한 방향성이 구체화되었다. 이후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참고문헌들이 통합되었다.

IV. 『법구경』을 통한 영유아교사 인성함양의 방향 모색

1. 자기성찰을 통한 평정심 유지: 자신의 수호자

영유아교사를 위한 인성함양의 방향으로 ‘자기성찰을 통한 평정심 유지’를 제안한다. 자기성찰은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인성 덕목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출발점²⁷⁾이자 교사

27) 위의 글, 131쪽.

발달단계에서 변화로 이끄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찰이 일상에서 자신의 정서, 사고, 행동들을 점검하는 “경험을 통한 자기발견이며 자기완성의 과정”²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구경』의 ‘자기’, ‘분노’, ‘쌍’, ‘현명한 님’, ‘방일하지 않음’, ‘길’, ‘사랑하는 자’, ‘다양한 것’ 총 8개 품에 잘 나타난다. 먼저 ‘자기’ 품에서는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 길은 자신의 든든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일상에서 늘 깨어있음을 강조한다. 불교는 한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붓다는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깨어난 자’²⁹⁾라고 명쾌하게 답변한다. 이는 인간 삶의 방향이 ‘깨달음’ 추구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깨달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임을 바로 아는 것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천’이 가장 중요함을 보여준다.

자기가 사랑스러운 것을 알면, 자기 자신을 잘 수호해야 한다. 현명한 님 이라면 세 시기 가운데 적어도 한 번 자기를 살펴야 하리.³⁰⁾

현명한 님 이라면 먼저 자신을 최적으로 확립하고 남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번뇌로 괴로워하지 않는다.³¹⁾

남을 가르치는 그대로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 자기는 참으로 다루기 어려우니 잘 다스려야만 실로 닦여진다.³²⁾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수호자이니 다른 누가 수호자가 되리. 자신을 잘 제어할 때 얻기 어려운 수호자를 얻는다.³³⁾

스스로 행해진 악은 자기에게서 생겨나고 자기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다이아몬드가 단단한 보석을 부수듯,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자를 부순다.³⁴⁾

28) 오정훈, 「자아성찰시 교육방법 연구(研究)」 『열린교육연구』제19권 제4호(서울: 한국열린교육학회, 2011), 27쪽.

29) Smith, H., 앞의 책, p.82.

30) 전재성, 앞의 책, 130쪽; Dhp. 157; 『法句經』「愛身品」(大正藏 4, p.565 下). “自愛身者 慎護所守 極望欲解 學正不寐”.

31) 같은 책; Dhp. 158; 『法句經』「教學品」(大正藏 4, p.559 下). “學當先求解 觀察別是非 受諦應誨彼 慧然不復惑”.

32) 위의 책, 131쪽; Dhp. 159; 『出曜經』「我品」(大正藏 4, p.723 下). “當自剋修 隨其教訓 己不被訓 焉能訓彼”.

33) 같은 책; Dhp. 160; 『法集要頌經』「己身品」(大正藏 4, p.788 下). “自己心為師 不隨他為師 自己為師者 獲真智人法”.

34) 같은 책; Dhp. 161; 『法句經』「愛身品」(大正藏 4, p.566 上). “本我所造 後我自受 為惡自更 如剛鑽珠”.

그릇되고 해로운 일은 자신에게 행하기 쉽고 유익하고 옳은 일은 자신을 위해 지극히 행하기 힘들다.³⁵⁾

자기가 실로 악을 행하고 자기가 오염된다.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않고 자기가 청정해진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각자가 짓는 것, 누가 누구를 정화시킬 것인가?³⁶⁾

남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해도 자기가 할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알아 바로 그 해야 할 일에 전념해야 하리.³⁷⁾

교사는 어디서든지 자신의 마음과 언행을 바르게 갖추는 것이 매 순간 가장 먼저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영유아기는 모든 발달의 최적기로써 특히 교사는 영유아들에게 인성발달을 촉진하는 롤모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없이 무조건 영유아들을 기계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유아교육기관을 단순히 직장으로만 여긴다면 다가오는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영유아 인성교육의 성공은 바로 교사의 인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교사의 자기조절력은 교육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적 능력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계발능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본성이 본래부터 청정하므로 외부로 치솟는 무의미한 관심을 자기의 내면세계로 친절하게 이끌어서 자신의 수호자가 되면 그 청정성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분노’ 품에서는 어떤 일로 화가 일어날 때 똑같이 화로 싸워 맞서는 것을 경계한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불같이 화내는 마음을 일체 악(惡) 중의 가장 큰 악(惡)이라고 보았으며, 단 한 번의 화를 내더라도 백 천 가지의 장애를 받고 지혜 중자가 끊어진다고 하였다.³⁸⁾ 만약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못 견뎌 화를 폭발한다면 자신의 인

35) 위의 책, 132쪽; Dhp. 163; 『法句經』「愛身品」(大正藏 4, p.92上). “惡行危身 愚以為易 善最安身 愚以為難”.

36) 같은 책; Dhp. 165; 『法句經』「愛身品」(大正藏 4, p.566上). “惡自受罪 善自受福 亦各須熟 彼不自代 習善得善 亦如種甜”.

37) 위의 책, 133쪽; Dhp. 166; 『法句經』「愛身品」(大正藏 4, p.566上). “凡用必豫慮 勿以損所務 如在意日修 事務不失時”.

38) 『大方廣佛華嚴經』(大正藏 9, p.607上). “佛子 若菩薩摩訶薩 起一瞋恚心者 一切惡中 無過此惡 何以故 佛子 若菩薩摩訶薩 起瞋恚心 則受百千障礙法門 何等百千 所謂受不見菩提障 不聞正法障 生不淨國障 生惡道障 生八難處障 多疾病障 多被謗毀障 生闇鈍趣障 失正念障 少智慧障”.

성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며 더욱 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신의 괴로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³⁹⁾이며, 조금 더 자신을 인내하고 그 괴로움과 사려 깊은 내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 화를 무조건 억누르고 없애려고 하기 보다는 화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그 화를 현재 그 순간에서 바라보기로써 다스려야 한다.⁴⁰⁾ 이렇게 심층적 차원에서 분노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을 평정심과 연결하여 부정의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실천적 사유가 이루어질 것이다.⁴¹⁾

분노를 여윌로 분노를 이기고 착함으로 악함을 이겨야 한다. 보시로 인색을 이기고 진실로 거짓을 이겨야 한다.⁴²⁾

언어적인 방종을 막고 언어적으로 자제하라. 언어적 악행을 버리고 언어적으로 선행을 행하라.⁴³⁾

정신적인 방종을 막고 정신적으로 자제하라. 정신적 악행을 버리고 정신적으로 선행을 행하라.⁴⁴⁾

신체적으로 자제할 뿐 아니라 또한 언어적으로 자제하는 현자들, 또한 정신적으로 자제하는 현자들은 참으로 완전히 자제된 님들이다.⁴⁵⁾

이처럼 교사는 어떤 일로 화가 올라오려는 순간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부정적 감정을 알아차려서 재빨리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곧 인성역량이라 하겠다. 불교심리학에서 정의하길 분노는 연민의 적이다.⁴⁶⁾ 이러한 점에서 사람들이 평소에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언어 및 행동적 표현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일

39) Rahula, W., 앞의 책, p.34.

40) 제프리 브랜틀리, *Calming Your Angry Mind*, 한기연 옮김, 『분노 내려놓기』(서울: 시그마 프레스, 2016), 101쪽.

41) 김경호, 「분노로부터 마음의 평정-분노의 동역학을 중심으로-」 『철학탐구』34집(서울: 중앙 철학연구소, 2013), 37쪽.

42) 전재성, 앞의 책, 153쪽; Dhp. 223; 『法句經』「忿怒品」(大正藏 4, p.568上). “忍辱勝患 善勝不善 勝者能施 至誠勝欺”.

43) 위의 책, 155쪽; Dhp. 232; 『法句經』「忿怒品」(大正藏 4, p.568上). “常守愼言 以護瞋患 除口惡言 誦習法言”.

44) 위의 책, 156쪽; Dhp. 233; 『法句經』「忿怒品」(大正藏 4, p.568上). “常守愼心 以護瞋患 除心惡念 思惟念道”.

45) 같은 책; Dhp. 234; 『法句經』「忿怒品」(大正藏 4, p.568上). “節身愼言 守攝其心 捨恚行道 忍辱最強”.

46) 제프리 브랜틀리, 앞의 책, 129쪽.

상에서 생각과 행동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르침은 몸과 입과 뜻으로 모두 조절할 수 있어야 ‘완전히 자제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신(身), 구(口), 의(意) 세 가지 업(業)에 쉽게 끌려 다니는 종(從)이 아닌 당당한 주인(主人)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쌍’ 품은 모든 것은 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낳는다는 가르침이다. 모든 일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의 ‘맑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깊이 있게 ‘내 마음 돌보기’가 필요하다.

정신이 사실들의 선구이고 정신이 그것들의 최상이고 그것들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만약에 사람이 오염된 정신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수레바퀴가 황소의 발굽을 따르듯.⁴⁷⁾

정신이 사실들의 선구이고 정신이 그것들의 최상자이고 그것들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만약에 사람이 깨끗한 정신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그림자가 자신을 떠나지 않듯.⁴⁸⁾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윌으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⁴⁹⁾

만약 어떤 교사가 모든 일에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끊임없이 생길 것이다. 특히 원한이나 원망의 불편한 감정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도 이와 같다. 따라서 교사가 일상 삶에 ‘마음수행’을 적용하여 정신적 습관을 잘 형성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준다.

‘현명한 님’ 품에서 현명한 사람이란 스스로의 욕망이나 감정 등을 판단에 의해 적절하게 표현하고 통제할 줄 아는 곧 자신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성격이 극단적이지 않고 자신의 충동적 행동을 알아차리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상심’으로 편안한 마음상태가 유지

47) 전재성, 앞의 책, 75쪽; Dhp. 1; 『法句經』「雙要品」(大正藏 4, p.562上). “心為法本 心尊心使 中心念惡 即言即行 罪苦自追 車轢于轍”.

48) 위의 책, 75-76쪽; Dhp. 2; 『法句經』「雙要品」(大正藏 4, p.562上). “心為法本 心尊心使 中心念善 即言即行 福樂自追 如影隨形”.

49) 위의 책, 76쪽; Dhp. 5; 『出曜經』「忿怒品」(大正藏 4, p.697上). “不可怨以怨 終已得休息 行忍得息怨 此名如來法”.

되며, 또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주지도 않는 안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치수자는 물길을 끌고 화살을 만드는 자는 화살을 다루고 목공은 나무를 다듬고
현명한 님은 자신을 잘 다룬다.⁵⁰⁾

참사람은 어디서든지 놓아버린다. 참사람은 욕망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다. 즐거움을 만나도 괴로움을 만나도 현명한 님은 우쭐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⁵¹⁾

이는 교사가 누구에게 칭찬을 들었거나 일이 잘 풀린다고 자만하지 않고, 그렇지 못하다고 쉽게 우울해 하고 좌절하지 않는 성품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러한 성품은 아무리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감정 변화에 덜 휩쓸려서 문제해결을 위한 바른 판단과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교사는 정신건강을 위해 스스로 회복탄력성을 잘 발휘하여야 한다.⁵²⁾ 교사가 자신의 개인적 욕망에 좌우되지 않을 때, 심리적 번뇌와 고통도 그 삶에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자신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욕망을 그저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고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추는 것에 대한 교훈을 준다.

‘방일하지 않음’ 품은 거짓됨이 없이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리 혹독한 난관에 부딪혀도 단단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이는 어떤 고난에 닥쳤을 때 자신의 내적 갈등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 수련을 위한 좋은 기회로 한 생각 돌려서 평상시대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다.

힘써 노력하고 방일하지 않고 자제하고 단련함으로써 지혜로운 님은 거센 흐름
에 난파되지 않는 섬을 만들어야 하리.⁵³⁾

이는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에 대한 성실함의 수련에 초점을 둔다. 이는 교사가 교

50) 위의 책, 102쪽; Dhp. 80; 『法句經』『明哲品』(大正藏 4, p.564上). “弓工調角 水人調船 材匠調木 智者調身”.

51) 위의 책, 103쪽; Dhp. 83; 『法句經』『明哲品』(大正藏 4, p.564上). “大人體無欲 在所照然明 雖或遭苦樂 不高現其智”.

52) 추병완, 「교사의 회복탄력성 함양 방안」 『도덕윤리과교육』제55호(서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7), 7쪽.

53) 전재성, 앞의 책, 83쪽; Dhp. 25; 『法句經』『放逸品』(大正藏 4, p.562中, 下). “發行不放逸 約以自調心 慧能作定明 不返冥淵中”.

육현장에서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남 탓으로 전가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는 일이다. 이것은 교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관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힘에 대한 교훈을 준다.

‘길’ 품은 명상을 하면 밝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명상을 게을리 하면 지혜가 점차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증장하도록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명상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신체적 감각에 주의를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행위로서 지금-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도록 돕는다. 이러한 과정은 마음을 강압적으로 붙잡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⁵⁴⁾

명상에서 광대한 지혜가 생기고 명상하지 않으면 광대한 지혜가 부서진다. 성장과 퇴락의 두 가지 길을 알아서 광대한 지혜가 성장하도록 거기에 자신을 확립하라.⁵⁵⁾

명상의 효과는 교육현장에서 지치고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소진될 때, 흐트러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거기에 오래도록 끌려 다니지 않도록 해 준다.⁵⁶⁾ 또한 명상은 긍정적 정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⁵⁷⁾ 따라서 예방적 관점에서 마음챙김 명상의 적용은 교사가 자기-자비 같은 내적 평온한 상태의 평화로움 속에서 자신을 늘 균형잡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사랑하는 자’ 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계행을 철저히 지키면 복덕과 지혜가 증장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칭송과 사랑을 받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항상 비난과 부정적 피드백으로 수많은 고통이 그림자처럼 뒤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청정한 계행을 갖추는 것은 선행 중의 으뜸이라 여긴다. 따라서 내면세계의 진정성은 인간으로서 태어나 ‘참나’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만든다.

계행과 통찰을 갖추고 가르침에 입각하여 진리를 설하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를 사랑한다.⁵⁸⁾

54) Greenland, Susan Kaiser, *The Mindful Child* (NY: Free Press, 2010), p.123.

55) 전재성, 앞의 책, 173쪽; Dh. 282; 『法句經』『道行品』(大正藏 4, p.569中). “念應念則正 念不應則邪 慧而不起邪 思正道乃成”.

56) Greenland, Susan Kaiser, 앞의 책, p.124.

57) 이영립, 「명상과 긍정적 정서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종교교육학연구』 제25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231-255쪽.

58) 전재성, 앞의 책, 150쪽; Dh. 217; 『法句經』『好喜品』(大正藏 4, p.567下). “貪法戒成 至誠知慚 行身近

이는 교사로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사철학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영적으로 성숙한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및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이를 직접 언행으로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본다.⁵⁹⁾ 따라서 교사가 자신의 올바른 역할을 알고, 또한 소속된 교육기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윤리적 민감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것’ 품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에게 괴로움이 따르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준다. 이것은 몸과 입과 뜻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는 오만하고 방일한 자들, 그들에게 번뇌는 늘어만 간다.⁶⁰⁾

신체에 대한 새김을 항상 잘 실천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언제나 수호하는 새김 있고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번뇌는 사라진다.⁶¹⁾

교사는 ‘교사로서의 삶’과 ‘개인적인 삶’에서 모두 그 자신의 마음 속도를 알아차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오랫동안 내성화된 신념이나 사고를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찰적 사유를 통해 반복된 행동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를 도모한다면 자기의 삶과 교육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기성찰을 통한 평정심 유지는 ‘자신에게 자비로운 나’가 되는 길이자 영유아교사의 인성함양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道 為眾所愛”.

59) Sergiovanni, T. J., *The principalship : A reflective-practice perspective*(3rd ed.) (Needham Heights, MA : Allyn and Bacon, 1995), p.87.

60) 전재성, 앞의 책, 176쪽; Dhp. 292; 『法句經』「廣衍品」(大正藏 4, p.569下). “已為多事 非事亦造 伎樂放逸 惡習日增”.

61) 위의 책, 177쪽; Dhp. 293; 『法句經』「廣衍品」(大正藏 4, p.569下). “精進惟行 習是捨非 修身自覺 是為正習”.

2. 연기적 통찰로 마음의 유연성 가지기 : 참사람의 향기

영유아교사를 위한 인성함양의 방향은 연기적 통찰로 마음의 유연성 가지기이다. 이는 자기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⁶²⁾ 이에 『법구경』의 ‘꽃’, ‘천(千)’, ‘진리에 서있는 님’, ‘폭력’, ‘티끌’, ‘코끼리’ 총 6개의 품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유연성의 범위는 정서적·심리적 유연성뿐만 아니라 사고의 인지적 유연성도 포함된다. 특히 인지적 유연성은 미래의 인재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손꼽힌다.⁶³⁾

불교에서는 ‘모두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고 한다. 이것은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부처님과 같은 훌륭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불교의 인간관을 잘 보여주며,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불교적 인간 유형을 ‘호모 부디스티쿠스(Homo Buddhisticus)’⁶⁴⁾라 하며,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연기(緣起)⁶⁵⁾적 통찰과 타인에 대한 겸허한 태도가 내면화된 이타적 속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불성(佛性)을 인성(人性)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다.⁶⁶⁾

‘꽃’ 품은 아름다운 꽃향기가 온 사방으로 퍼지는 것처럼 덕행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라는 가르침이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업[身, 口, 意]을 맑히는 실천을 통한 자비⁶⁷⁾를 강조한다. 반대로 오염된 삼업은 치명적인 전염병처럼 주변을 물들

62) 헬렌 맥그래스·헤이즐 에드워즈, *Difficult Personalities*, 이지연·안지연 공역, 『함께 지내기 힘든 성격들』(서울: 학지사, 2014), 405쪽.

63) <‘4차 산업혁명’ 과도한 반응 역효과 부른다> 《디지털타임스》 2017년 9월 20일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92002102251037001&ref=daum.에서 2017년 10월 30일 검색.

64) 고영섭, 『불교적 인간』(서울: 신아사, 2010), 9쪽.

65) 『雜阿含經』(大正藏 2, p.92 下). “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 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 이것이 있으므로 저 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 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 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되므로 저 것이 소멸된다. 즉, 연기(緣起)는 ‘조건 지어(緣) 발생(起)한다’는 뜻이다. 연기법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인 관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존재하고 그 관계가 없어지면 존재도 또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기의 원리는 어떤 존재든지 우연적으로 생기거나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서로는 서로에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 조건이 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라고 볼 수 없으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과 모든 존재는 항상 ‘변화’한다는 것이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편찬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서울: 불교시대사 1997), 77쪽.

66) 박병기, 「불교윤리에 기반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학술대회』(인천: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3), 358쪽.

67) 문을식, 「불전에서 자비 개념의 전개 양상(1)」, 『불교연구』37호(서울: 한국불교연구원, 2012), 10쪽.

일 것이다. 이 계승에서 ‘참사람’의 의미는 공심을 가지고 주변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려는 선행(善行)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꽃은 찬란하고 아름답더라도 향기가 없듯, 말이 잘 설해져도 실천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⁶⁸⁾

어떤 꽃은 찬란하고 아름답고 향기도 있듯, 말이 잘 설해지고 실천이 있으면, 열매도 있다.⁶⁹⁾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한다. 전단향도 파가라향도 말리까향도, 그러나 참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니 참사람의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간다.⁷⁰⁾

개인의 경험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되며, 이는 모든 것에 판단기준으로서 작용되고, 참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굳어진 생각과 한 쪽으로 치우친 편협된 생각은 자기 존중·타인 존중·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된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은 개방성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교사공동체에서 참다운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잘 성취하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천(千)’ 품은 천 가지 쓸모없는 행위보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온전히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가르침이다. 또한 많은 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핵심을 통찰하는 힘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 우리가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얻는 데는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가까이 하는가,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자비의 속성으로, ① 자신과 타인을 더 잘 돌보고자 하는 동기 ②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민감성 ③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연민 ④ 어려운 감정이나 기억 혹은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견뎌내는 능력 ⑤ 자신과 타인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며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통찰 ⑥ 자신과 타인에 대해 수용하고, 비난하지 않으며, 무조건 좋게만 보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이다. Gilbert, Paul, *The compassionate mi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2009), p.209.

68) 전재성, 앞의 책, 92쪽; Dhp. 51; 『法句經』「華香品」(大正藏 4, p.563中). “如可意華 色好無香 工語如是 不行無得.”

69) 같은 책; Dhp. 52; 『法句經』「華香品」(大正藏 4, p.563中). “如可意華 色美且香 工語有行 必得其福.”

70) 위의 책, 93쪽; Dhp. 54; 『出曜經』「忿怒品」(大正藏 4, p.657中). “華香不逆風 芙蓉梅檀香 德香逆風熏 德人遍聞香”.

쓸데없는 천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서 안온해지는 한 마디의 말이 낫다.⁷¹⁾
 쓸데없는 천 마디 시구를 외우는 것보다 들어서 안온해지는 한 마디의 시구가
 낫다.⁷²⁾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일로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 다른 사람과 쓸모없는 많은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재빨리 찾아 실천하는 것이다. 특히 공감 받을 수 있는 좋은 글을 찾아 읽고 스스로를 비춰보고 실천하려는 노력이다. 이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삶의 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마음의 균형을 잡아가는 일은 좋은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이다.

‘폭력’ 품은 상대에게 던진 거친 말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가르침이다. 이는 당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 보복의 씨앗을 심고 키우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는 고통 받기를 원하지 않고 늘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에게도 거친 말을 하지 말라. 받은 자가 그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걱정 of 말은 고통을 야기하니 되돌아온 매가 그대를 때리리라.⁷³⁾

누구든 상대에게 신체적 학대 및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삶 속에서 연기적 상호관계성의 원리를 사려 깊게 새겨서 한 순간이라도 충동적인 생각과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금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온화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가꾸는 일일 것이다.

‘티끌’ 품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숨기려 들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여 확대해석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가르침이다. 이는 전체적 조망 능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예로, 우리가 나무 한 그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남의 잘못이든 자신의 잘못이든 객관적으

71) 위의 책, 110쪽; Dhp. 100; 『出曜經』「述千品」(大正藏 4, p.564中). “雖誦千言 句義不正 不如一要 聞可滅意”.

72) 같은 책; Dhp. 101; 『增壹阿含經』「增上品」(大正藏 2, p.673中). “雖誦千章 不義何益 不如一句 聞可得道”.

73) 위의 책, 121쪽; Dhp. 133; 『法句經』「刀杖品」(大正藏 4, p.565中). “不當麤言 言當畏報 惡往禍來 刀杖歸軀”.

로 여유롭게 마주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남의 잘못은 보기 쉬워도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왕겨처럼 키로
켜지만, 자신의 잘못은 덮어버린다. 교활한 도박꾼이 잘못 던진 주사위를 감추듯.⁷⁴⁾

남의 잘못을 보고서 항상 혐책의 상념을 지니면, 그의 번뇌는 증가하니, 번뇌의
부숨과는 멀어지리.⁷⁵⁾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비판 혹
은 비난이 많고 결점을 집요하게 잡아내어 남의 좋은 평판을 끌어내리기를 즐긴다. 교
사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만약 다른 사람
의 허물을 보게 되어 불만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체 없이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고, 되도록 긍정적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유연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진리에 서있는 님’ 품은 조급하게 판단하여 잘못 분별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가르
침이다. 그와 반대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대인관계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한다면 훌륭한 인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처럼 마음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진리에 서있는 님이 되지 못하니. 현명한 자라면 옳고
그름의 그 양자를 분별해야 하리.⁷⁶⁾

성급하지 않고 가르침에 의해서 공정하게 남들을 인도하는 현명한 님은 진리에
수호되어 진리에 서있는 님이라 불린다.⁷⁷⁾

교사는 상대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인식으로 경계심을 가지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또 다른 일과 연결하여 상대를 불공평하게 대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변에서

74) 위의 책, 162쪽; Dhp. 252; 『出曜經』「觀品」(大正藏 4, p.736中). “善觀已瑕隙 使已不露外 彼彼自有隙 如彼飛輕塵”.

75) 같은 책; Dhp. 253; 『出曜經』「觀品」(大正藏 4, p.736中). “若已稱無瑕 二事俱并至 但見外人隙 恒懷危害心”.

76) 위의 책, 164쪽; Dhp. 256; 『法句經』「奉持品」(大正藏 4, p.568下). “好經道者 不競於利 有利無利 無欲不惑”.

77) 같은 책; Dhp. 257; 『法句經』「奉持品」(大正藏 4, p.568下). “常愍好學 正心以行 擁懷寶慧 是謂為道”.

일어나는 일들을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고 깊이 있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격이 밝고 너그러우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다.

‘코끼리’ 품은 자신이 자율적으로 계행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으로써 상대의 근거 없는 비난도 용서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불교의 대표적 동물인 코끼리는 인내하는 어진 성품을 상징한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를 힐난하고 근거 없이 모욕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그들의 질투심과 심리적 결핍감을 해소하기 위한 욕구충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함께 부화뇌동(附和雷同)하기보다는 연민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코끼리가 전쟁터에 나아가면 활에서 화살이 쏟아져도 참아내듯, 나는 근거 없는 비난을 참아내리라. 사람들은 대부분 계행을 지키지 않으니.⁷⁸⁾

교사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무조건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충분한 자각을 통해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현재의 고통을 멈추는 길이고 연속적인 피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는 사무량심(四無量心)⁷⁹⁾과 사섭법(四攝法)⁸⁰⁾으로 상대를 포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것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⁸¹⁾이다.

따라서 연기적 통찰로 마음의 유연성을 가지는 것은 ‘타인에게 자비로운 나’가 되는 길이자 영유아교사의 인성함양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78) 위의 책, 187쪽; Dh. 320; 『法句經』『象喻品』(大正藏 4, p.570中). “我如象門 不恐中箭 常以誠信 度無戒人”.

79) 초기불교의 대표적인 선정 수행 중에 하나로써, 자(慈), 비(悲), 희(喜), 사(捨)의 한량없는 마음을 말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강조하였다. 사무량심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번뇌가 제거된다. 자심(慈心)으로써 분노심을 제거하고 비심(悲心)으로써 남을 해치는 마음이 제거되고 희심(喜心)으로써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좋지 못한 마음이 제거되고, 사심(捨心)으로써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제거된다고 한다. 이자랑·이필원,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서울: 민족사, 2016), 96쪽.

80) 대중을 포용·포섭하는 네 가지 방법이다. 보시섭(報施攝)은 베풀기로 대중을 포용하는 것, 애어섭(愛語攝)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을 건네면서 대중을 인도하는 것, 이행섭(利行攝)은 자기의 이익보다는 대중을 먼저 이롭게 하는 것, 동사섭(同事攝)은 대중과 함께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입장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편찬, 『불교 입문』(서울: 조계종출판사, 2017), 183-184쪽.

81) 타라 브랙, *Radical Acceptance*, 김선주·김정호 옮김. 『받아들임』(서울: 불광출판사, 2012), 51쪽.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법구경』의 가르침을 통해 영유아교사 인성함양을 위한 방향으로 개인적 자원과 관계적 자원의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자기성찰을 통한 평정심 유지이다. 이것은 삼독심(三毒心)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역동적인 자신의 수호자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어야 주변도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불교적 자기성찰은 지금-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태도와 항상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몰입하려는 알아차림과 꾸준히 정진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성찰은 조고각하(照顧脚下)의 의미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둘 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 있다. 자신의 발밑을 잘 비추어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속뜻은 매순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명(無明)으로 인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 번뇌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자신 밖의 일로 시시비비(是是非非) 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그 안을 면밀히 살피라는 것이다. 이것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정심은 이렇게 자각과 부단한 연습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자 ‘마음의 조화를 돕는 인성역량’이다.

둘째, 연기적 통찰로 마음의 유연성 가지기이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사람이 바로 참사람이라 할 수 있다. 불교적 입장에서 보는 ‘참사람’이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上求菩提 下化衆生)는 마음가짐으로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그것을 널리 실천하는 인성적 특성을 가진 자로 본다. 이러한 참사람의 향기는 오래도록 멀리까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항상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은 주변을 맑고 향기롭게 하여 사회적 귀감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기적 통찰이다. 이것은 온 우주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적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실제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얻어진 유연한 마음은 인간관계 역량에서 특히 그 우수함이 잘 드러난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분별없이 평등하게 관계 맺고 존중하며 쌍방향 걸림 없이 소통하여 공동체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원천으로 작용된다. 이를 통해 교사의 ‘상호연관성 인성역량’을 갖출 수 있다.

이처럼 『법구경』에 담긴 불교 사상은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풍부한 자원으로써 ‘교사는 누구인가?’, ‘교사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가 일상의 화두를 삼아서 교사를 진정 교사답게 해주는 긍정적 변화를 가능하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교사연수 및 교사교

육 프로그램에 이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예로, 김용환(2011)의 연구에서는 『법구경』을 분노치유 심리 상담에 적용하여 내면의 힘을 찾아가는 심리치료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것은 『법구경』과의 만남이 인간의 내적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관점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현직 영유아교사의 인성함양 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의 내용으로 분노 내려놓기 자기치유프로그램, 날마다 자기성찰을 위한 집단 상담 및 개인 상담, 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인성함양 등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또한 『법구경』에 기반 한 영유아교사 인성함양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고정관념 및 선입견 탈출을 위해 무아(無我)에 기초한 인지행동치료, 남 탓에서 내 탓으로 마음전환 프로그램, 자기 연민과 자기-자비 실천을 위한 ‘자기 마음 돌봄’ 프로젝트, 사성제에 기초한 마인드 맵 활용법, 지금 여기서 온전히 공감하기(5단계) 연수 프로그램, 삼독심을 버리고 ‘마음 심플하게 만들기’, ‘유쾌한 교사를 위한 평정심 코칭’ 등이다. 이러한 교육이나 연수는 지속적으로 또한 단계별로 실시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성함양의 경험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사가 자신의 인성함양에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내면화되도록 해야 더욱 효과가 크겠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서, 『법구경』을 활용한 영유아 교사용 인성 척도를 개발하고 적용 해보는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의 현직 혹은 예비유아교사의 인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측정 도구 개발은 자기평가와 교사교육을 실시하는데 기초자료로써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동서고금을 통해 역사가 깊고 널리 알려져 있는 문헌인 『법구경』을 접목하여 인성함양의 핵심내용과 나아갈 방향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직 교사들뿐만 아니라 예비유아교사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의 기초자료로써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法句經』(大正藏 4).
- 『出曜經』(大正藏 4).
- 『增壹阿含經』(大正藏 2).
- 『法集要頌經』(大正藏 4).
- 『雜阿含經』(大正藏 2).
- 『大方廣佛華嚴經』(大正藏 9).
- 고영섭, 『불교적 인간』, 서울: 신아사, 2010.
-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불교학개론』,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곽만연, 「불교의 인간관과 인성관」 『學生研究』제29집 1호(부산: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1).
- 김경신, 「교직역량에 기반한 유아교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경호, 「분노로부터 마음의 평정-분노의 동역학을 중심으로」 『철학탐구』34집(서울: 중앙철학연구소, 2013).
- 김용환, 「『法句經』(*Dhammapada*)의 사상」 『동아시아불교문화』제6집(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 _____, 「붓다의 심리상담 연구」 『종교와 문화』제20집(서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1).
- 김준호, 「초기불교의 욕망론과 선(禪)-『숫타니파타』와 『담마파다』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제36호(대전: 한국동서철학회, 2005).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편찬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 서울: 불교시대사, 1997.
- 대한불교조계종 역경위원회, 『한글 대장경』16-2, 서울: 동국역경원, 1977.
- 대한불교조계종 편찬, 『불교 입문』,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7.
- 문을식, 「불전에서 자비 개념의 전개 양상(1)」 『불교연구』37호(서울: 한국 불교연구원, 2012).
- 박병기, 「불교윤리에 기반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학술대회』(인천: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3).
- 법정 옮김, 『진리의 말씀: 법구경』, 경기도: 이레, 2005.

- 변미옥, 「영유아교사의 인성함양을 위한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안신·허우성, 「이슬람과 불교의 인간관에 대한 비교 연구: 꾸란과 법구경을 중심으로」, 『韓國中東學會論叢』제32집 1호(서울: 한국중동학회, 2011).
- 오정훈, 「자아성찰시 교육방법 연구」, 『열린교육연구』제19권 제4호(서울: 한국열린교육학회, 2011).
- 유주연·김순환, 「유아교사의 통합적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육아지원연구』10권 제2호(익산: 한국육아지원학회, 2015).
- 이영림, 「명상과 긍정적 정서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종교교육학연구』제25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 _____, 「유아교사의 인성 덕목 실천에 대한 어려움」, 『생태유아교육연구』제16권 제2(부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7).
- 이영림(범우)·김혜순, 「어린이집 생명존중교육의 난점과 명상의 접목 가능성 탐색」, 『한국불교학』제75집(서울: 한국불교학회, 2015).
- 이자랑·이필원,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서울: 민족사, 2016.
- 이향만, 「인성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5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 전재성 역주, 『법구경-담마파다』,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8.
- 정태혁 편역, 『법구경 인연담』, 서울: 정신세계사, 2007.
- 제프리 브랜틀리, *Calming Your Angry Mind*, 한기연 옮김, 『분노 내려놓기』,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6.
- 추명완, 「교사의 회복탄력성 함양 방안」, 『도덕윤리과교육』제55호(서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7).
- 타라 브랙, *Radical Acceptance*, 김선주·김정호 옮김, 『받아들임』, 서울: 불광출판사, 2012.
- 호진, 『무아·윤회 문제의 연구』, 서울: 불광출판사, 2015.
- 헬렌 맥그래스·헤이즐 에드워즈, *Difficult Personalities*, 이지연·안지연 공역, 『함께지 내기 힘든 성격들』, 서울: 학지사, 2014.
- Gilbert, Paul, *The compassionate mi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2009.
- Greenland, Susan Kaiser, *The Mindful Child*, NY: Free Press, 2010.
- Rahula, W., *What the buddha taught*, London and Bedford: Gordon Fraser, 1990.
- Sergiovanni, T. J., *The principalship : A reflective-practice perspective (3rd ed.)*, Needham

Heights, MA : Allyn and Bacon, 1995.

Smith, H., *The world's religions*, San Francisco: HarperSan Francisco, 1991.

보건복지부. 〈보육교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2016년 1월 12일자.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9492&page=1.에서 2017년 8월 31일 검색.

보건복지부. 〈정부, 제 11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열어 아동학대 근절 의지 다져〉 2017년 11월 16일자.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9492&page=1.에서 2017년 11월 18일 검색.

〈보육교사 아동학대 증가하는데 인성교육은 4.8%만 이수〉 《헤럴드경제》 2017년 10월 28일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27000795>.에서 2017년 10월 30일 검색.

〈‘4차 산업혁명’ 과도한 반응 역효과 부른다〉 《디지털타임스》 2017년 9월 20일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92002102251037001&ref=daum.에서 2017년 10월 30일 검색.

〈AI에 수학·과학 맡기고, 우리 감정지능 과목 만들자〉 《조선일보》 2017년 3월 21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1/2017032100223.html.에서 2017년 4월 20일 검색.

한국보육진흥원. <https://www.kcpi.or.kr/>.

원고접수일: 2017년 11월 17일 심사일: 2017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27일

연구자소개: 이영림(범우)

① 전공: 응용불교, 유아심리 / 소속: 동국대학교(경주) 불교문화대학원

② 관심영역: 응용불교학, 인성함양, 불교명상

③ 주요논저: 「어린이집 생명존중교육의 난점과 명상의 접목 가능성 탐색」, 「유아 명상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및 향후 연구방향 모색」, 「연봉동자상이 불교 아동교육에 주는 시사점 탐색」, 「유아교사의 인성 덕목 실천에 대한 어려움」 등

④ E - mail : child - b@hanmail.net

Abstract

Exploring for Ways to Build Character Through Dhammapada:
Targeting Early Childhood Teachers

Young-Rim Lee(Ven. Beomwoo)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for ways in which early childhood teachers could build character through *Dhammapada*. To this e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behind *Dhammapada*, a global guide on character that contains humanity's universal wisdom and transcends generations and religions, was explored. Next, for literature review, *Dhammapada* by Jeon Jae-seong was examined. Through a two-tiered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First, by maintaining composure, one must practice examine self everyday, becoming a teacher who is also an unyielding guardian of self. Second, by nurturing flexibility in the heart, and through histrionic insight, a teacher must be able to share with anyone the scent of true love. The direction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to build character should be focused on implementing mercy for oneself and others. Such a Buddhist approach to build character in early childhood teachers is a paradigm for bringing about a better future, and has meaning in suggesting such a directionality.

Key words: Dhammapada, character building, early childhood teachers, composure, flexibility